

전남도 천연물산업 중심지 육성 속도

약초·약재 등 표준화 지원

2027년까지 전문기관 설립

여수서 발전전략 마련 포럼

전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약재, 약초 등 천연물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오는 2027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표준화 지원 전문기관은 국제 규격 전주기 표준화 지원, 산업화 우선 지원 표준화 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품 생산시스템 구축, 표준화 인증 지원 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가 구축되면 사업화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기업 연구개발비가 연간 3500억원 이상 절감되며, 국내 천연물 제품 해외 매출

이 20%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전남도는 지난 2일 관련 전문가들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K-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공개 포럼'에서 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산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 명이 표준화 전문 지원기관의 건립 필요성과 산업계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천연물 산업의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개발 사례를 통한 국내 천연물 의약품 연구개발 및 표준화 방향', '글로벌 천연물의약품 표준화 전략', '천연물산업 표준화 동향 및 전주기 표준화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천연물 산업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신대희 천연물개발연구회 연구회장, 임종래 ㈜중근당 연구개발본부장, 임재연 코스맥스 NBT 마케팅본부장, 이윤옥 ㈜내추럴엔도텍 중앙

연구소장, 강세찬 경희대 교수, 최철용 조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 중요성 및 지원 전략에 대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재 천연물 표준화는 고난도의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는 단계다. 국내외 표준화된 천연물 소재와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중국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천연물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00여 종의 생물자원이 자생하는 천연물의 보고이자, 국내 유일 천연물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이라며 "K-천연물산업 전주기 표준화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세계 천연물 시장을 선도하는 등 미래를 이끌 핵심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맞춤형 여행코스 전남도가 짜드립니다

'여행취향 플래너' 제작 배포

인스타그램 소문내기 이벤트도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엠지(MZ)세대의 성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취향 플래너'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행취향 플래너'는 성격유형 테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여행 취향을 선택하면 이를 분석해 전남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행 관련 13개 질문 문항과 개인 취향을 나타내는 16개 캐릭터, 32개 여행코스로 구성됐다. 추천 여행코스에 필요한 인근 먹거리, 숙박 시설 등 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엠지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남도여행 만들기 공모'를 통해 발굴된 300여 건의 여행계획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작됐다. 전남도는 '여행취향 플래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문내기 이벤트'를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

테스트 참여 결과를 인스타그램에 필수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면 된다. '좋아요'가 많은 게시물을 선정해 전남 소재 호텔 숙박권과 음료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에 발맞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엠지세대들에게 전남 소재 관광지, 음식,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개인 성향이 반영된 전남 여행코스 추천을 받아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 '탄소중립' 사례발표 호응

8.2GW 해상풍력·그린수소

태양광 도민발전소 등 비전 제시

한국, 중국, 일본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제23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전남도가 '글로벌 탄소중립 신산업 허브 전남' 사례발표를 해 이목을 끌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후 3개 기관이 순회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주최해 지난 4일 중국 장시성에서 열렸다.

'협력상생, 공동발전'으로 더욱 긴밀한 동북아 운명공동체 구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공무원, 학자, 기업 대표 등 4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및 녹색 저탄소 분야에서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대한민국 대표로 사례발표를 했다. 국내 최대 여수 석유화



학 국가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돼 탄소중립에는 취약한 환경이지만,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5GW 규모의 태양광 도민 발전소,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

성 등 전남도의 비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제24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2023년 일본 아미나시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인재개발원 지자체HRD 콘테스트 장관상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호평

전남도인재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0회 지방자치단체HRD 콘테스트에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HRD 콘테스트'는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능력있는 교수요원 발굴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강의 분야와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총 16개 팀이 출전했다.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 출전한 전남도는 '선도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정'을 발표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과정은 민선8기 전남도정 8대 전략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도'를 공적 자 스스로 내재화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이다.

실시간 비대면 교수 설계와 온라인 강사 워크숍, 해당 분야 국내 분야별 전문가 강의, 국내 선진 사례 탐방 설계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상동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워크숍, 선진사례 탐방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중요성을 성찰하고 도와 시·군 담당자 간 협업체제 구축에 힘쓴 결과"라며 "전남의 비전인 '전남 행복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의무적용 대상 확대

식육가공업 연매출 1억 이상

전남도 현장 지도·홍보 강화

전남도가 연말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한에 인증받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위해요소를 확인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부터 식육가공업과 축산물포장처리업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육가공업의 의무적용 대상은 현재 '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다. 2022년 12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식품을 넣어 양념하거나 가열처리 또는 세절·분해 등 가공처리를 해 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업종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가 처음 의무적

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육포장처리업은 도축장에서 구매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의 첨가나 가공 없이, 단순 절단·분쇄해 포장육을 만드는 업종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절차는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 식육가공업은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12월 9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사용기간 연장도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도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임대료 최대 80%를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

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인하한 금액 만큼 환급해줄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임대계약을 한 전남도 해당부서 또는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69개 업체 3억8300만원 상당의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이 경영상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일어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안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